

목회칼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영국 웨스트 스탠리의 한 마을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광산이 붕괴되는 바람에 갱도 안에서 일하던 수많은 광부가 매몰돼 숨졌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 주교였던 핸들리 모올은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교는 갱도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신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일이 선하게 마무리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을 이어 갔습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책갈피가 하나 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물건이지만, 안팎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안에는 매듭과 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만 눈에 띕니다.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수습하지 못한 자리처럼 보이지요. 안쪽만 본 사람은 자수의 기본도 모르는 초보자가 아무렇게나 바느질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아름답게 수놓은 글자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위로의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책갈피의 안쪽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완성품 쪽을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압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굽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시 76:6)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꾸짖기만 하셔도 이처럼 적의 모든 군대는 두려워 얼어붙고 맙니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거하는 곳의 중심에 임재하시며 그들에게 안전과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호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 6월 합심기도

하나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새 날을 주소서(합 2:14)
둘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시 91)
셋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계 17:14)
넷	교회의 직분자들이 상황의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불붙는 확신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다음주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전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❷ 새벽예배와 수요일예배(오전 11시)를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❸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www.sechurch.kr) 접속후 “실시간 예배 영상 바로보기” 클릭 또는 유튜브에서 “의정부 성은교회”를 검색하셔서 11시에 예배 동영상을 보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 이번 주 교회청소 - 5셀 ▶ 다음 주 - 6셀

◆ 7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7/4	맥추감사주일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정우준 노성진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행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이희숙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7: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 작 물 은 아 모 레 퍼 시 픽 의 아 리 따 글꼴 을 사 용 하 여 디 자 인 되 었 습 니 다 . *

2021년 6월 27일 26호

2021년 성은교회 표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을 주소서” (합 2:14)